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2년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 리뷰 및 2023년 전망

2P

- 서비스업이 경제성장 견인,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건수는 증가했으나 피급효과는 저조

2023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1)

21P

- 사이버보안법, 법률 위반 행위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개월 동안 저장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산업인력공단(HRDK)	10
✓ <팀코리아협의체 동정>	하남성 진출기업 경영지원세미나	12
✓ <기업탐방>	주영베트남 현호웅 회장	14
✓ <투자> 베트남 진출방안 살펴보기	전현우 변호사	18
✓ <법률> 2023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1)	김유호 변호사	21
✓ <통관>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23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자라이성>		26
✓ <이달의 보고서>	한·베 수교 30주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32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3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38





2022년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 리뷰 및 2023년 전망



- 2022년 중부지역 평균 성장을 8.57%
- 서비스업이 경제성장 견인,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건수는 증가했으나 파급효과는 저조

2022년은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회복과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던 2021년도와 달리 경제활동이 전면 정상화 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 덕분에 베트남 경제가 다시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2년 중부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57%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8.07%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베트남 중부지역의 대표 도시인 다낭은 주력 산업인 관광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으며 중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22년 경제성장률이 14.05%로 베트남 63개 성시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꽝남성은 건설 및 서비스업 재개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1년의 5%에서 2022년에는 11.2%로 크게 상승하였다. 다른 성시 대비 회복세가 더딘 꽝응아이성을 제외하면 중부지역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산업별 경제 비중 및 성장률

산업별로는 1, 2차 산업이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3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등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관광 서비스업은 여타 산업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중부지역 경제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소매판매, 산업생산 및 투자 현황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내수 판매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꽝응아이, 꼰뚬의 내수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다낭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 등으로 다른 지표 대비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산업생산 지수(IIP)는 꼰뚬, 꽝남, 꽝찌가 각각 22.78%, 19.10%, 18.42%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부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기대보다는 저조했다. 투자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주로 투자금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이 많아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2022년 중부지역 베트남 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관광서비스 활성화와 더불어 견조한 내수시장의 성장에 힘입에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은 중국의 Zero Covid 봉쇄 정책의 해제에 따라 관광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부지역 경제가 더 높은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돼 베트남 중부지역의 시장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베트남 국내의 정치이슈 등으로 각종 정책 시행 및 프로젝트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며 세무조사 강화, 토지 분쟁 확대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바 현지 시장을 진출코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드디어 RCEP 양허세율 2023년 1월부로 활용 가능

- 베트남 수입 시 적용 가능한 양허세율표 2022년도 12월 30일 발효
- HS 협약 7차 개정안 반영 시행규칙 2022년도 12월 30일 발효

한국은 베트남과 기존에 2007년 한-아세안 FTA, 2015년 한-베 FTA를 발효하여 적용해왔기 때문에, 기업은 RCEP과의 추가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2022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국내 법령 제정의 지연으로 인해 2022년 4월부터 비로소 RCEP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수입 시" RCEP 양허 세율의 적용은 계속적으로 지연돼왔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30일 비로소 RCEP 이행을 위한 2022-2027 베트남 특별 우대 수입세율표(129/2022/ND-CP)가 1월부로 발효함으로써 2023년 1월부터는 베트남 수입 시에도 RCEP의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세관에서 2022년 12월 30일에 발표한 RCEP 세부 세율표를 소개하고 2023년부로 적용되는 품목을 살피고자 한다.

2022년 12월 30일 HS 2022 개정 사항 함께 반영

제7차 HS협약 개정에 따른 HS 2022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 발효하였으나 베트남의 경우 국내 법령 제정 지연으로 기존 HS 2017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비로소 12월 말 재무부 시행규칙 31/2022/TT-BTC가 한 차례 연기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발효되었다. 이에 AHTN 2022를 반영한 해당 시행규칙 부속서 발효를 통해 HS 7차 개정안이 비로소 반영되었으며 2023년 1월부로 수입 시에도 RCEP 활용이 가능해졌다.

RCEP 주요 품목별 관세 인하 혜택

RCEP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HS code 품목 수 기준으로 약 85%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 일정은 시행령 129/2022/ND-CP 부속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약 62% 품목에 대해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20%의 물품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시사점 :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RCEP, 적극 활용 필요

RCEP의 경우 관세율 인하 측면에 있어서는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와 비교 시 혜택이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단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누적 기준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베트남의 RCEP 활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 및 품목별 수입 양허세율은 첨부되어 있는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가이드북 및 원문에 별첨된 양허세율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2023년 베트남 의류용 원단 시장동향



- EVFTA 원산지 누적규정 활용을 통한 시장 확대
- 지속가능한 생산, 섬유기술 R&D,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기존과 다른 진출 시도 필요

지난 2월 3일 베트남 정부는 신발·섬유·의류 산업을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최대 8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 아직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 수행에 그치고 있다. 직물류, 즉 원단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원단 제품 대부분이 수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내수용 의류 생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동향

베트남 국내 원단 생산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위축됐으나 다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 나갔다. 합성섬유 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체 원단 시장 규모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생산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원단 소비량과 생산량이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섬유·의류 수출이 다시 긍정적 전망을 보이면서 관련 시장 역시 회복세를 보였다.

시장동향

작년 12월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2022년 섬유·의류 수출액이 43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약 9% 상승한 수치이다.

규제동향

베트남으로 원단 수출 후 현지 생산을 거쳐 제3국으로 의류 수출에 대한 기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EV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관세청에서도 국내 섬유수출기업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중에 발효된 건으로 당장 큰 혜택을 보지 못했으나 VITAS가 의류 수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섬유 기업들의 수출 수주 증대가 예상된다.

시사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편직물(MTI 3단위 기준) 수출금액은 8억11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HS CODE 5407.61 품목 뿐만 아니라 제50~55류 전반에 걸쳐 식물성 및 동물성 천연섬유, 합성 및 인공섬유, 제60류 편물 분야에서도 기반으로 꾸준한 수출 증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지속가능성, 친환경 생산 기법, 재활용섬유 등의 친환경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섬유 산업 전반에 있어 친환경 기술 개발 역시 필수이다. 따라서 FTA 관세 혜택, 고품질 원단, 각종 플랫폼 활용 등 적극적인 현지 진출 노력이 이어진다면 우리 섬유 기업들의 수출 역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 전문가들 "베트남 인플레이션 최고조에 달한듯"...1월 CPI 4.89%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89%를 기록하였고,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측정하는 근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5.21% 증가했음. 하지만 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 Pham The Anh(팜 테 앙) 교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1월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2월부터는 감소하여 3~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함. 2023년 베트남 정부의 물가 상승률 통제 목표는 4.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인데, 베트남의 ABC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상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이에 베트남 정부가 물가 상승률 통제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분석함.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매 및 서비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 매출의 88.1% 수준에 불과했음. 이러한 수요 감소가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는데,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소비를 위축시켰고 높은 금리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유도했음. 아울러, 베트남의 통화공급량 둔화,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하락함.

[Tuoi Tre, 2. 16]

▶ 애플 협력사 폭스콘, 제조시설 확장 위해 베트남 북부 박장성 토지 임대 계약 체결

애플이 공급망 탈중국화를 가속화 하는 가운데 애플의 최대 공급업체인 폭스콘(Foxconn)은 베트남에 생산 시설 확장에 나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에 따르면 지난 14일 폭스콘은 사이공-박장(Bac Giang) 산업 단지 내 45ha(45만평) 규모의 부지를 2057년 2월까지 임대 계약 체결함. 지난해 폭스콘은 중국 정저우시에 있는 세계 최대 아이폰 제조 공장에서 펼쳐진 코로나19 통제 정책 반대 시위로 인해 생산에 큰 타격을 받았음.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 또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당시 신형 아이폰(14)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함. 앞서 폭스콘은 올해 5월 초 출시 예정인 맥북의 신형 기종 생산을 이미 베트남으로 이전했으며, 이번 토지 임대 계약을 진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이전할 예정임.

[Tuoi Tre, 2. 16]

▶ 베트남 공항, 이르면 4월부터 안면인식 기술 시범 적용

베트남 민간 항공국(CAAV)은 보안 강화 및 체크인 간소화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 도입 계획을 발표함. 최첨단 생체 인식 기술 도입으로 서류 위조 방지 및 적발, 범죄자 식별 등의 효과가 예상됨. 도입 예정 시기는 2023년 1분기부터이며, 베트남 교통부(MoT)에 결과 보고를 할 예정으로 공식 도입은 6개월 시범운영 후 결정될 예정임. 한편, 지난 10월에 베트남 민간항공국의 주관으로 국내선 비행편에 대한 칩 기반 신분증 사용이 논의된 바 있으며, 베트남 공항공사(ACV), 노이바이 국제공항, 베트남 항공(Vietnamese Airlines), 베트남 공안부(MPS), 지상 서비스 회사 등이 참가하였음.

[Vietnam News, 2. 16]



▶ 1월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절반으로 급감...전월대비 57% 감소

베트남 구정 연휴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1월 자동차 판매가 전월대비 57% 감소한 2만 1,168대 판매되었음.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 협회(VAMA) 회원사들의 자동차 판매가 12월 대비 51% 감소한 1만 7,314대가 판매되었으며, 현대차(Hyundai Thanh Cong)와 빈파스트(VinFast)의 경우 각각 64%, 92% 판매량이 감소하였음. 관계자들은 12월에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였다가 1월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로, 베트남 최대 명절인 구정 연휴(1월 20~26일)의 한 달 전에 고객들이 신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함.

[VN Express, 2. 14]

▶ 베트남, 對중국 수출 회복으로 과일 가격 급등

베트남의 과일 가격이 對중국 수출 회복으로 인해 급등함. 지난 1월 8일 중국 재개방 이후 베트남 과일 수출 가격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하였으며, 두리안의 도매가는 1kg 당 19만 동(8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그 외 백용과 18~25만 동, 적용과 35~38만 동, 잭프루트 18~25만 동 등 다른 과일의 가격 또한 증가하였음. 다른 농산물의 가격 역시 급등하였으며, 고구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여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기록함. 중국 주요 수출 시장의 재개로 인한 공급 부족이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두리안 등 제철이 아닌 과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이에 따라 공급농가에 웃돈을 지급하는 등 유통가 상승 우려도 함께 제기됨.

[VN Express, 2. 13]

▶ 재무부,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기한 연장 제안

베트남 재무부는 2023년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토지 임대료 납부유예 등의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2023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며, 베트남도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무부의 세금 인하 기한 연장안이 제시되었음. 재무부는 2023년 1~5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6개월 연장, 6월의 부가가치세는 5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 납부 유예액은 약 64~65조 동(약 27억 달러) 정도로 추산됨. 또한, 2023년 1·2분기 법인세는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는 42조 8,000억~43조 6,000억 동(약 18억 달러)으로 추산되었고, 기업, 가구, 개인의 토지 임대료를 30% 인하할 것을 제안함.

[Nhan Dan, 2. 11]

▶ 연초 국내 차량판매가 대폭 하락

올 연초 국내 자동차 판매가격이 대폭 인하됨. 현대TC모터스는 그랜드 i10, 액센트, 엘란트라, 투싼, 스타제이저, 산타페 등의 인기 모델을 대상으로 최소 2천만 동에서 최대 1억 3백만 동까지 할인(최소 855달러, 최대 4,400달러)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함. 혼다 베트남은 혼다 CR-V 및 시티(City) 모델 구매자를 대상으로 2월 4일에서 28일까지 등록비를 100% 대신 부담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혼다 차량 딜러사에서는 자동차보험 및 차량용품을 제공함. 마쓰다, 미쓰비시, 기아, 스바루, 뉴산 및 스즈키 등의 기타 제조사에서도 등록비 50~100% 면제 및 차량가격을 최대 수천만 동까지 할인 중임. 차량 재고에 비해 연초 차량 수요가 적은 것이 주요인이며, 제조사 및 판매사 입장에서는 빠른 재고 소진 후 신규 모델 수입이 필수적임.

[Vietnam News, 2. 10]



▶ 호치민 시, 2023년 FDI 최대 45억 달러 규모 유치 예상

베트남 호치민시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경제 안정 및 인플레이션 통제 가능 시 41억에서 최대 45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함. 호치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호치민 시 FDI 규모가 전년 대비 5.4% 증가한 약 39억 4천만 달러로 63개 성·시 중 최대 규모였다고 밝힘. 1월 20일자 FDI 유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억 7,900만 달러이며, 신규 프로젝트 50건에 8,700만 달러, 지분 매입 5,500만 달러, 기존 프로젝트 20건에 대한 추가 투자 3,700만 달러로 집계됨.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7,700만 달러로 1위, 대만과 홍콩이 각각 3,200만 달러, 2,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각 2위, 3위를 차지함. 특히 FDI 유치 분야별로 보았을 때, 부동산에서 첨단기술 및 제조업으로 변화하였으며, 토지 공급 물량이 적어 대규모 제조업 단지 투자 유치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함. 직접투자 이외에도 남부지역 공급망 및 R&D, 운송 등 투자유치 분야 다변화 전략 등의 노력이 필요함.

[Vietnam News, 2. 10]

▶ 베트남, CPTPP 덕분에 對캐나다 수출 활성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베트남-아메리카 대륙 간 교역을 돋는 최초의 FTA이며, 2021년 베트남의 對캐나다 수출은 약 53억 달러로 CPTPP 발효 이전보다 75% 증가 및 전년 대비 20.8% 증가하였으며, 2022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63억 달러를 넘어섬. 각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최소 27.7%에서 최대 224.5%까지 증가하였음. 품목별로 보았을 때 관세 0% 대상인 의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3% 증가한 13억 달러로, 對캐나다 수출액 중 20.7%를 차지하였고, 신발류는 64.3% 증가한 6억 460만 달러,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류는 27.7% 증가한 5억 2,130만 달러를 차지함. 캐나다는 CPTPP 협정 내용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 중 78%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관세 철폐 로드맵에 따라 일부 품목 관세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힘.

[Vietnam Plus, 2. 9]

▶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 빈페스트(VinFast), 미국 사업장 인원 감축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 빈페스트(VinFast)는 미국 사업장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함. 빈페스트는 주요 해외 시장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지난 1월에는 이미 미국 및 캐나다 사업장을 단일 사업 단위로 통합함. 관계자에 따르면 본사 인원 최대 30% 감축안 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졌으나 빈페스트 대변인은 베트남 본사 인원 감축 계획은 없으며 업무결과의 평가에 따라 해고 및 추가채용이 이루어 질 수는 있다고 발표함. 작년 11월 전기차를 최초 수출 및 작년 12월 인도 계획이었으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이번 2월에 인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미국 서부 해안 항구에 보관 중이라고 밝힘. 빈페스트는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임. 한편,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Tesla)는 세액 공제 및 가격 인하를 발표하였으나 빈페스트 차량은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VN Express, 2. 7]



▶ 베트남 전자상거래, 호황 지속 전망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술 인프라, 유리한 정부정책 등의 도움을 받아 2023년에도 호황이 예상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약 100여개의 나라들과 거래하고 있으며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eMarkerter가 선정한 전자상거래 성장률 순위 상위 5개국 중 하나로 선정됨. 2022년 베트남의 4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Shopee, Lazada, Tiki, Sendo는 135조 동(약 3,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함. 2022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64억 달러로 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 총 매출의 7.5% 차지할 것으로 추산됨. 약 5,700~6,0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지출액은 260~285 달러임. 2022 베트남 E-Business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최대 74.8%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한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으로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기술 및 전자기기가 꼽혔음.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의 응우옌 탄 흥(Nguyen Thanh Hung) 협회장은 유관기관 협조, 정책, 인적자원 교육 등 정부로부터의 많은 관심을 받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함. 현재 베트남 소매시장은 약 2,500억 달러 규모이며, 베트남 디지털경제국 부국장은 정부가 전체 소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음.

[Vietnam Plus, 2. 7]

▶ 베트남, 글로벌 수요감소로 쌀 수출 급감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라 지난 1월 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한 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에 따르면, 물량 기준으로 40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한 수치임을 알림.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재고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전함.

[VN Express, 2. 7]

▶ 베트남, 1월 농림어업부문 수출액 37억 달러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에 따르면, 베트남의 1월 농수산물 수출액은 37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였음. 주요 농산물 수출액은 17억 달러 이상으로 13% 가까이 감소하였고, 수산물과 목재/목재류 수출액은 각각 31%, 30% 감소한 6억 달러, 11억 달러로 집계됨. 또한 농업농촌개발부는, 긴연휴와 주문 부족으로 인해 1월 수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전함.

[Nhan Dan, 2. 6]



▶ 베트남, 2022년 대 아시아 무역 전년대비 9.6% 증가한 4,753억 달러 기록

베트남의 2022년 대 아시아 상품 교역액은 작년대비 9.6% 증가한 4,752억 9,000만 달러로, 베트남 총 수출입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65.1%)을 차지함. 2022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하여 1,772억 6,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수입은 9.6% 증가하여 2,98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은 전세계 5개 대륙 중 아시아와의 무역에서만 무역 적자를 기록함. 아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이 있음. 베트남 관세청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총 수출입액은 7,302억 달러로 전년대비 9.1% 증가함. 베트남의 수출입 규모는 미주지역에서 1,537억 3,000만 달러(10.5% 증가), 유럽지역에서 754억 5,000만 달러(2.8% 증가), 오세아니아지역에서 176억 2,000만 달러(24.3% 증가), 아프리카지역에서 81억 달러(3.9% 감소)를 기록함.

[Nhan Dan, 2. 3]

▶ 베트남,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철회 이후 무역량 급증

베트남 북부의 라오까이(Lao Cai) 성은 중국과의 내륙 국경 관문을 통한 활발한 수출입 활동으로 1월 한 달간 4,950만 달러의 수출입액을 기록함. 이중 수입액은 2,570만 달러, 수출액은 2,380만 달러로 집계됨. 당국은 2023년 1월 라오까이(베트남)-허커우(중국) 국경을 통해 4만 5,000톤 이상의 농산물이 수출됐고 이는 전년대비 27% 증가하여 2,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밝힘. 주요 수출품으로는 바나나, 수박, 용과, 땅콩, 대나무, 등나무 등의 베트남산 신선 식품이며 농산물, 제과, 화학, 기계류 등을 수입함. 라오까이 국경 관문 응우옌 테 흥(Nguyen The Hung) 부국장은 2023년이 시작되면서 국경 관문의 수출입이 활발해졌다고 전하며, 설 연휴 기간에도 상품들이 빠르게 이동했다고 전함. 라오까이(Lao Cai) 성은 2023년 총 50억 달러의 대외 무역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임.

[Saigon Giai Phong, 1. 31]

▶ 2023년 1월 베트남 외국인투자 신규프로젝트 금액 전년동기 대비 48.5% 증가

2023년 1월 베트남 외국인투자 신규프로젝트가 전년동기대비 48.5% 증가함. 지난 1월 29일 베트남 통계총국(GSO)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169억 달러를 차지했음. 한편 1월 신규 프로젝트 승인건은 총 153건(총등록자본 12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48.5% 증가하고 총 등록자본은 3.1배 증가함. 28개 투자국 중 최대 투자국은 7억 6,760만 달러를 투자한 싱가포르로 신규 총 등록자본 중 63.7%를 차지하였고, 2위는 1억 9,820만 달러를 투자한 중국으로 16.4%를 차지함. 외국인직접투자 실제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한 약 13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됨. 베트남의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배 증가한 1억 2,67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对한국 투자금액은 1억 2,510만 달러로 가장 크고 뒤이어 태국(150만 달러), 라오스(14만 달러) 순임.**

[Vietnam Times, 1. 30]



한국산업인력공단(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 EPS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숙련기술장려 등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의 능력개발 지원사업과 수요에 맞는 평가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현장의 직무를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능력개발과 고용향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로 향하는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정보제공부터 연수,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청년 해외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위해 외국인 고용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술강국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EPS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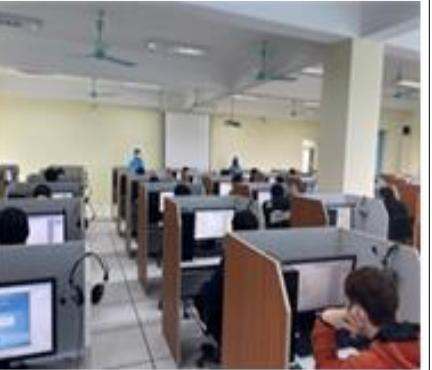
베트남 EPS센터는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도입되는 베트남 외국인력에 대한 선발, 송출과정 모니터링 및 도입지원을 통해 베트남 근로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송출 국가와의 업무협력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CBT 시험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양 국간 MOU 및 후속합의서 체결·갱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력 선발을 위해 고용허가제 설명회 등 홍보 실시, 한국어 및 기능시험 시행, 뿌리산업 직종에 대한 기능인력 훈련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근로자의 투명한 도입을 위해 구직자명부 등록과 근로계약 체결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취업교육에 대한 강의지원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근로를 마치고 귀환한 근로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한국기업과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와 귀환근로자의 성공사례 발굴, 귀환근로자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외에 한국 청년들에 대한 베트남 취업 지원을 위해 코트라와 협업하여 해외취업 박람회(만남의 장)를 개최하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취업사실확인서 심사·승인 업무와 K-Move스쿨 연수지원 및 취업자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베트남 내에서의 취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진

		
고용허가제 설명회	응시원서 접수 모니터링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
		
귀환근로자 성공사례 수기공모 시상	유관기관 협력	귀환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뿌리산업 훈련생 훈련 장면	뿌리산업 훈련생 이수평가	베트남에 취업한 한국 청년들

<끝>



2023년 베트남 하남성 진출기업 경영지원세미나 개최

□ 경영지원 세미나(간담회) 개요

- 행사명 : 2023년 베트남 하남성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간담회
- 개최목적 : 진출기업 세무·노무·관세 이슈 안내 및 경영 간 애로사항 청취
- 일 시 : 2023. 2. 22일(수), 14:00~17:10 (경영지원 세미나 및 간담회)
- 장 소 : 하남성 소재 호텔(드렁타인 호텔)
- 개최규모 : 정부 기관/협회 및 진출기업 등
- 주최 :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코참 베트남,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주요내용
 - 경영지원 세미나(세션1)
 - 발표(1) 2023년 주요 법률 이슈
 - 발표(2) 2023년 베 정부 주요 세무관리 동향
 - 발표(3)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방안
 - 경영지원 세미나(세션2)
 - 발표(4) RCEP 및 베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 심사 제도 소개
 - 발표(5) 신용보증기금 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 발표(6) 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 진출기업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 Q&A



<행사 주요 사진>



<끝>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양은 모두에게 동등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는 스스로 예측해야 합니다.”

주영베트남 현호웅 회장 인터뷰



현호웅 회장 약력

- 대웅교역(주), 서울, 1984년 설립
- 대웅베트남, 호치민, 1995년 설립
(주요 생산품목: 인형, 슬리퍼, 샌들 등
주요 고객: M&S, Target 등 글로벌 유통체인)
- 주영베트남, 룽안, 2009년 설립
(주요 사업 : 공장 건설, 임대 및 부동산 개발
주요 실적 : 한국기업 공장 건설 건 다수)

처음 한국에서 제조 회사를 설립한 이후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신 배경에 대해 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독자 여러분!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198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처음 해외 진출을 결심하고 조사한 곳은 중국의 청도 남구였습니다. 현지 조사를 마치고 중국 청도 남구와 계약을 맺고, 공장 이전 준비를 마칠 무렵, 예상치 못한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 이전 계획에 맞춰 이미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수주한 물량이 많았지만, 중국으로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약속한 납기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던 중, 당시 중국은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홍콩, 태국 등 주변 국들을 조사한 후 최종 인도네시아로 목적지를 전향해야 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달랐지만,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초반에는 사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장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컬 인력들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고, 결국 생산까지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함이 쌓이던 가운데, IMF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997년 발생한 IMF는 세계적으로는 아시아발 금융위기라고 불리며 아시아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었고, 그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장 뿐만 아니라 많은 공장 인력들은 공장에 불을 지르고, 데모를 하는 등 단체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이러한 IMF사태 상황에서 공장 운영은 더욱 어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인 위기와 더불어 정권이 바뀌는 등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심하고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베트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운영을 하는 사이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베트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입국했던 연도가 1993년도 였고, 그리고 약 1년 동안 먼저 임대 공장을 빌려 테스트베드로 점검을 해본 후 1995년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으로 발생할 일을 잘 예측해서 발전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당시 제조업만 고집하지 않고 과감하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투자 방식을 바꿔서 더 일찍 다른 사업들에 도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 및 해외지역에서 여러 회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빠르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195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이후 남북 전쟁까지, 가장 변화가 많았던 시대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여유가 없고 서두르기만 하면서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빨리 빨리’ 마인드로 현재 세계적인 기업이 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 A사의 사례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초기 A사는 일본 대기업의 경쟁사보다 항상 개발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A사의 연구진들은 밤새워 개발하고, 연구해서 상품을 일본의 기업들보다 더 빨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차별된 신상품이 빠르게 출시되는 동시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문제도 빠르게 대처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만의 그 ‘빨리 빨리’ 문화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격변의 시대를 지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일찍 비즈니스를 변경하셨다면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해외 진출을 하고, 한참 일하던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연관된 비즈니스를 연결해오며 그 일들을 이어가기 위한 토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해즈브로(HASBRO)라는 지금도 유명한 미국의 완구 회사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회사 정책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 매일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의 여건은 한국 대비 낮은 인건비로 장점도 컸지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수출입 등 여려가지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바로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사업 운영을 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산업 환경도 많이 변했고, 베트남내에서도 꾸준한 인프라 발전에 대한 노력, 국내외의 투자, 정부 지침의 변화 등 이 나라 모든 것이 수많은 변화를 거쳐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돌아보았을 때는 다른 비즈니스로 변화를 생각했다면 베트남 내수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이나, 부동산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전향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베트남의 변화를 지켜온 30년 기간 동안 한국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약 30년간 직접적으로 체감하신 베트남 산업 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베트남의 산업 환경은 아시아의 중심에서 매년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여주며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급성장했던 시기와 현재 베트남을 비교해보면, 베트남이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정이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예를 들자면, 공장을 건설하던 중 변경된 법률에 의거하여 공단 내 설치되어 있는 소화수 설비들과는 별개로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로 사용할 소방수 450톤을 추가로 공장 내에도 확보하라는 지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안전 기준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이미 공장 운영 경험이 있었고, 초기 설립 단계에서부터 공장내 열기를 배출 및 환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온 덕분에 지금까지는 고쳐야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은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재도 고쳐야할 많은 부분을 지적 받고 있습니다. 또 오/폐수 처리도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된 것 입니다. 저희 사업장이 공단 안에 있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닌 생활 오수(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손을 씻는 물 등)는 공단 내부 처리 시설로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더 높여서 배출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새로 지침이 된 기준은 물고기가 자라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배출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환경 오염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제적인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일정 기준을 넘어 강화되는 법은 결국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들은 점점 강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들의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한 더욱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따라야 하는 점이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 산업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남서부 지방에서 스마트팜 산업을 새로이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주영의 미래산업으로 결정하신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팜은 안정적인 장래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사람들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먹는 것,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한 것들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농업은 과거에는 1차 산업에 속했지만, 앞으로 농업은 계속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고도화 되면서 농업도 계획 생산을 하고, 수요에 맞게 공급 스케줄을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겨울, 봄철에만 먹을 수 있었던 딸기를 요즘에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스마트팜 기술을 발전 시킬 수록 계절과 무관하게 자연 환경을 극복해서 소비자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대기업들은 지금 당장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스마트팜 분야에 투자를 하고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각국의 정부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비슷한 과정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영에서 특별히 달랏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달랏에 구상하고 계시는 스마트팜 비즈니스는 몇 차 산업으로 보시나요?



우선 제가 달랏이라는 지역을 선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후 때문입니다. 달랏은 지리적 위치상 해발 1,500m의 고원지대에 자리잡고 있고 다른 지역과는 기온 차가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여름 기온도 타 지역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은 물론 고원지대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수질 관리,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위치적으로 달랏은 그런 이점들로 인해 비닐하우스, 글라스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많이 있고, 베트남에서 농업 및 화훼업에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달랏이 베트남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광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활동을 하면서 관광을 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는 방문자들에게 재배 과정을 보여주며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체험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연 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갖출 수 있는 관광 복합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현재의 스마트팜은 단순 1차 산업인 과거의 농업의 틀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산업은 농업, 2차 산업은 공장과 같은 제조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 그리고 4차 산업은 미래 지향적인 첨단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팜 비지니스는 1차에서 4차산업까지 결합된 통합 산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운영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그런 제조 운영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업으로서 스마트팜 산업에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궁극적으로 제조업과 농업이 같다고 봅니다. 예전 농부들은 밭에 씨를 심고 시기에 맞춰 수확을 했지만, 지금은 씨를 일일이 직접 뿌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은 기계가 씨를 하나씩 꽂아 미리 설정해둔 급수와 온도, 습도, 조명이 자동으로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모종에 따라 냉동, 해동으로 싹을 틔우기도 하고 자라난 싹을 잘라내 옮겨 심어서 영양을 보충해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성장을 촉진시켜 재배 후 포장하고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농업이 발전이 되면, 더 이상 농업 분야는 1차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 기업화 되고 제조 공장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 시설 또는 장치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서, 그 산업 환경 안에서 가장 적합한 성장의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메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생산된 상품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가공해서 포장되고, 판매처로 바로 배송 되거나 생산된 곳에서 직접 판매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는 제조업 운영으로 축적한 제조와 물류, 유통 노하우를 스마트팜 산업 서비스들과 결합 시키면,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가 30년 전에 베트남에 진출 할 때는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90년대 초 해외 진출을 준비하던 한국 제조업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한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니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제화 시대엔 10년은 기본이고, 최소 20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고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임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의 미래 가치를 얼마큼 예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베트남 성장 속도를 고려했을 때 내수시장, 수출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베트남 진출방안 살펴보기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것은, 그리고 최근까지도 가장 자주 안내 드리는 문의사항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입니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베트남 법제도는 낯설고 어색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국인으로서 큰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만, 베트남에서 한국인은 외국인 투자자로서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진출 목적에 따라 그 접근 방향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에 관심있으신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베트남 진출 방안

베트남은 투자법상 외국인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경우를 몇가지 방안으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5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법인설립(Enterprise / Company)
-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 지점설립(Branch)
- BCC (Business Corporation Contract)를 이용한 투자

이 중 99%의 투자자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바로 대표사무소, 그리고 법인설립 방안입니다. 그럼 각 진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와 다음에 소개해드릴 법인설립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표사무소는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내 연락사무소 역할, 시장조사, 마케팅 등 제한적인 역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출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 그리고 시장조사 등 진출에 앞서 베트남을 알아보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인허가 발급이 매우 오래걸리고 어려운 은행 등 금융업, 자원개발 등 특수업종의 경우 본 투자 전에 베트남 투자기회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은 서류준비기간을 포함해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표사무소도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금융회사 등 특수업종의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은행 대표사무소를 6개월만에 설립했는데 라이선스 전달식에서 중앙은행에서도 가장 빨리 승인한 케이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4. 법인설립

법인설립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수익활동을 할 수 있고, 베트남에서 세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이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또한 베트남인이라면 개인사업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투자법 상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기에 베트남에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법인을 반드시 설립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은 법인 설립에 앞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등록증은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제안서, 재무능력증빙서류 등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 발급, 법인설립공고절차를 거쳐 법인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가 허용 되어있고, 승인을 취득하는데 어렵지 않은 업종들의 경우 서류준비기간에 일반적으로 2주에서 3주정도 소요되고, 서류 접수일 기준 투자등록증은 발급까지는 약 3주정도 소요되며,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에 1주정도 소요되어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 투자가 가능한 부분인지, 어떠한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이후 지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5. 기타 투자형태

앞서 설명 드린 대표사무소와 법인설립이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자가 진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고, 지금 설명드릴 방법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방법들입니다.



가. 프로젝트 오피스 (P.O)

프로젝트 오피스의 경우 건설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설사들이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프로젝트만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경우 영속성이 있어 별도 청산을 하지 않으면 투입된 자본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랜트, 발전소 건설 등 특정한 프로젝트 진행을 하여 베트남에서 계속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나. 지점설립

지점의 경우 별도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본사의 베트남 지점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용어를 혼동하여 베트남 지점 등으로 종종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률상 지점은 은행 등 매우 특수한 분야에만 설립이 허용되어있어,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설립 자체가 허용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인인가가 매우 어려운 경우, 지점을 먼저 설립하고 법인인가를 받는 형태의 진출을 사용하며, 은행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2개의 은행만이 법인형태로 진출하였으며, 하나은행, IBK,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은 모두 지점 형태로만 진출하였습니다.

다. BCC 계약을 통한 진출

BCC계약은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를 이용한 방법으로, 베트남 내 로컬 파트너를 요구합니다. 이 또한 투자등록증 발급 등을 요구하고 있고, 베트남 파트너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자 일정 부분을 출자하여 별도 법인체를 설립하는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6. 마치며

지금까지 베트남 진출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진출에 앞서 어떠한 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지 확인하시고 목적에 적합한 방안으로 진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끝>



2023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1)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발효된 새 법규 중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일부는 관련 조항도 포함해 정리하였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정작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혼동이 불가피했는데, 드디어 작년 말(2022년 10월 1일)에 **사이버 보안법 시행령**(Decree 53/2022/ND-CP)이 발효되었다.

사이버 보안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data on personal information)’, ‘서비스 사용자 간 관계에 관한 데이터(data on relationships of service users)’ 등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했고, 데이터 저장, 개인의 정보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했다. 전자 상거래나 온라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최소 24개월 동안 베트남 내에 보관해야 하고, 사이버 보안법 위반 행위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외국 회사는 베트남에 지사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사이버 보안법을 안내하는 시행령(Decree 53/2022/ND-CP)

제27조. 베트남 내 데이터 저장 기간 및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 설립

- … 데이터 보관 기간은 기업이 데이터 저장 요청을 받은 때부터 … 종료될 때까지이다. 의무 보관 기간은 **24개월**이다.
- … 베트남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시기**는 … 기업이 베트남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해당 사업이 베트남에서 운영을 종료하거나 베트남에서 …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이다.
- …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 로그는 최소 **12개월** 동안 저장한다.



보험사업법(2023년 1월 1일 시행)도 개정되었다. 보험회사, 재보험(再保險)회사와 외국 보험 지점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투자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귀금속과 부동산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특히 은행 등 이미 많은 금융 기관들이 별도의 부동산 투자 부서를 통해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금융이 활발한 상황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보험회사들까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이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미리 싹을 자르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보험사업법(Law No. 08/2022/QH15)

제99조. 투자에 관한 일반 규정

2.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또는 베트남 내 외국 지점의 투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c) 차입한 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 **부동산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다른 기업에 대한 자본 출자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d) 상호 소유 관계에 있는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30% 이상의 투자는 금지된다. 다만, 이 금지 조항은 신용 기관에 예치된 예금 및 수취 외국에 회사 설립 또는 해외 지점 설립의 형태의 대외 투자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dd) 자본을 출자한 주주… 또는 구성원과 관련된 자 … 투자는 … 거래 사무소에 예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e) 발행회사의 대출 구조조정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행된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g) 신탁 투자의 경우, 수탁자(受託者)는 신탁 투자의 범위에 속하는 신탁 투자 활동을 … 위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베트남 내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및 외국 지점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없다**.

- a)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부동산 사업에 대한 투자: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업체의 주식 …, 보험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영업소로 … 사용되는 부동산을 매입, 투자 또는 소유하는 경우, … 비어있는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저당권을 관리 또는 처분 …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 3년 이내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 b) **귀금속, 보석에 대한 투자**;
- c) 무형 고정 자산(intangible fixed assets)에 대한 투자(단, 보험 회사 또는 지점의 상업 및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

<끝>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 베트남 수출세 대상과 환급 여부 >

Q : 베트남 수출입 시에는 수출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세 대상은 어떤 물품인가요? 수출세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A :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일부 품목에 대해 자국의 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 제품이 수출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HS code 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25류 ~ 제 28류 석재, 제 26류 광물, 제 27류의 유류, 제 44류 목재, 제 68류의 석재, 제 71류 ~ 제 81류의 금속류 등 원자재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세 부과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 관세율은 제품별로 1%~40%로 상이하며, FOB 가격 혹은 DAF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수출세의 경우 수출입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1) 수출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혹은 납부대상 물품보다 적은 수량이 수출된 경우
- 2) 수출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 물품이 재수입 되는 경우. 이 경우 수출세는 환급되며,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 납부의 필요가 없다.

<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 결정 제도 >

Q : 한국의 경우 품목분류 이슈가 있을 때,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받는 품목분류 사전 심사 제도가 있는데, 베트남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나요?

A : 베트남 관세법 제 28조에 따라, 관세당국이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HS code, 원산지 및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유권해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신청인이 신청서 및 관련 정보, 샘플을 제출 시 관세 당국의 검토를 통해 HS code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여하며, 법정 기한은 30일 및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6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전 결정 제도에 따른 유권해석은 최대 3년간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문이 부여될 경우 관세당국 데이터 베이스 및 공식 웹사이트 게재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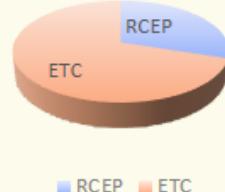
* 현재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에서는 2022년도 베트남 사전 심사 결정문 중 화학 및 기계 분야 각각 20여개의 물품에 대한 사전결정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업께서는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RCEP 이란?

- 한국이 최초로 참여하는 메가 FTA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
- 한국이 베트남과 함께 참여한 3번째 자유무역협정

인구 및 GDP 규모 대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2.4억 인구
(2020년도 세계인구 대비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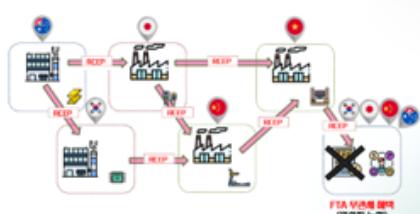
\$25,873 GDP
(2020년도 세계 GDP 30.6%)

\$10,173 무역규모
(2020년도 세계 무역 규모 29.1%)

역내국 간 누적 기준 및 원산지 규정 활용 가능성



스파게티볼 효과 해소 예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RCEP 활용 Q&A

Q.

베트남은 아직 수입할 때 RCEP 활용이 안된다는데… 이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RCEP의 이행을 위한 2022-2027 베트남 특별 우대 수입 세율표 (129/2022/ND-CP)가 2022년도 12월 30일자로 발효하였습니다.

수입 시 한국산 물품은 해당 기행령 부속개 6쪽에 따라 양허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Q.

2022년도 12월 30일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RCEP 혜택 적용은 불가한가요?

A.

상기 기행령 129/2022/ND-CP 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 RCEP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납부된 금액에 대해 규정에 따라 세관이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Q.

현재 수입 시 RCEP 활용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한국은 베트남과 이미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를 체결하였으며, RCEP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들에 대한 관세 양허 혜택이 두 FTA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수입 전 각 FTA별 혜택 비교 후 선택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세 양허 이외에 누적기준, 단일 원산지 기준 등 RCEP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에, 기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RCEP 관세 혜택 summary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즉시할인	7,096	62%
점진 인하	2,254	20%
기준 세율 유지	1,078	9%
양허 제외	1,029	9%
총계	14,457	100.0%

주요 품목별 관세 인하 혜택

식품류



약 47%의 HS code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0% 적용,
36%에 대해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점진적 인하 예정.

품목 구분	양허 통행
동물성 생산품	3%-40%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식물성 생산품	5%-30%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지방 및 유자류	5%-30%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과자 및 쇠당류	10%-25%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조제식품류	7%-38%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음료 제품	20%-55%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섬유 및 의류

약 83%의 HS code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무관세 적용,
15% 물품에 대해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점진적 인하 예정.
일부 기준 세율이 유지되는 면직물, 인조 섬유직물,

의류 부분품 등 유의 필요.

비료 및 화학제품

제 31류 비료 및 제32류, 제 35류 ~ 제 38류의 화학제품은
RCEP 양혜택 활용 실익이 큰 분야로, 95%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 규정.

특히 **연산비료 (3103호), 화약물품 (3604호),**
폐기물류 (3825호) 해당 물품은 양허 제외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즉시할인	7,096	62%
점진 인하	2,254	20%
기준 세율 유지	1,078	9%
양허 제외	1,029	9%
총계	14,457	100.0%

주요 품목별 관세 인하 혜택



기계, 장비, 전기전자제품

기계 및 장비류가 분류되는 제 84류의 경우,

MFN 0%인 제품을 포함하여 약 93% 무관세 및 관세 인하
일부 HS code 3~35% 정도의 세율이 유지 혹은 미양하

품목 구분	관세율표 구분
8407호 ~ 8409호	차량용 내연기관 및 부품
8413호 ~ 8414호	일부 액체펌프 및 기체펌프
8415호	공기조절기 (가정용 에어컨 등)
8418호	냉장기구 (가정용 냉장고 등)
8436호	동물사료조제용 기계
8450호 ~ 8452호	가정용 세탁기, 직물용 기계 및 채봉기
8483호	일부 차량용 기아, 전동축 등



전자제품류가 분류되는 제 85류의 경우,

MFN 0%인 제품을 포함하여 약 86% 무관세 및 관세 인하
일부 HS code 3~35% 정도의 세율이 유지 혹은 미양하
가정용 전자제품류 양허 혜택 없음에 유의

품목 구분	관세율표 구분
8501호	전동기 및 발전기
8504호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등
8506호~8507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8509호 및 8516호	가정용 전자제품 및 전열기기
8512호	차량용 조명기기
8518호~8519호	가정용 세탁기, 직물용 기계 및 채봉기
8521호, 8523호	일부 차량용 기아, 전동축 등
8527호~8528호	전기제이昂 보드, 페널, 부품
8539호	플라멘트램프, 방전램프, LED 광원 등
8544호	케이블류



하노이 FTA 활용지원센터

FTA 적용 및 통관법률 애로해소



FTA 활용지원

- 예상 HS CODE 확인
- 실제 관세 혜택 비교
- 원산지증명서/확인서 활용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베트남 통관애로 접수 및 지원

- 통관 및 물류 관련 애로사항 접수
- 수입물품별 인허가 제도(수입요건) 안내
- 수출입관련 법령 확인
- EPE 수출관리, 임가공, 관세환급 등 상담



KOTRA 하노이 무역관 내 FTA 활용지원센터
참빛타워 20층 024-3946-0511 (620)

박민설 관세사 minsulpark@kotra.or.kr
이연정 대리 eon_journey@kotra.or.kr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 - 자라이성

□ 자라이(Gia Lai)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 15,510km² / 인구 : 1.6백만 명 도시거주 비율 : 28.9%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라이성은 서부고원지역[띠이응우엔(Tay Nguyen) 지역*]의 북쪽, 해발 평균 700-800m에 위치해 있음 * 꼰뚬(Kon Tum)성, 자라이(Gia Lai)성, 닥락(Dak Lak)성, 닥농(Dak Nong)성과 럼동(Lam Dong)성을 합쳐 부르는 지역에 대한 명칭 서부고원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자라이성은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삼각형에서 무역 허브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띠이응우엔 지역을 중부 연해 지역 및 남부와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허브이기도 함 북쪽으로는 꼰뚬(Kon Tum)성, 북동쪽으로는 꽝응아이(Quang Ngai)성, 동쪽으로는 빈딘(Binh Dinh)성 및 푸엔(Phu Yen)성, 남쪽으로는 닥락(Dak Lak)성, 서쪽으로는 캄보디아와 인접해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14번, 25번, 19번, 14C, 19D 국도, 쪐엉선동(Truong Son Dong) 로드 항공: 플레이꾸(Pleiku) 공항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9.27% 성 1인당 GDP: US 2,561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 6.6억 달러 / 총 수입액: US 1.4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22.46%), 서비스업(6.7%), 농수산업(4.61%)
산업구조('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28.43%, 서비스업: 39.15%, 농수산업: 28.39%
노무여건('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연령 인구 비율: 58.5%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59.1%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38.4%
최저임금('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레이꾸(Pleiku)시: VND 3,640,000= US 158 달러(3급지) 타 지역: VND 3,250,000= US 141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2.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라이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9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7.07억 달러 (한국) 아직 없음



□ 투자환경



자라이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 (도로) 현재 자라이성의 동-서, 남-북 방향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편리한 도로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총 길이 723km로 6개의 국도가 있음[19번, 19D, 25번, 14번, 14C, 쭈엉선동(Truong Son Dong) 로드]

- 14번 국도(또는 호치민 로드): 호치민시 및 다낭시를 포함한 여러 성을 관통함
 - 25번 국도: 자라이성을 푸옌(Phu Yen)성과 연결함
 - 19번 국도: 푸옌성의 꾸년(Quy Nhon) 항구, 자라이성의 레타잉(Le Thanh) 국제관문을 관통함
- 2030년까지의 핵심 목표는 플레이꾸-꾸년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며, 이는 수직 고속도로(남-북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수평 도로가 되어 베트남 고속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가 기대됨.
- (항공) 플레이꾸(Pleiku) 공항은 4C 표준 공항이며, Airbus 320, Boeing 727 등 중거리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음. 현재 하노이, 호치민시, 하이퐁(Hai Phong)시, 빈(Vinh)시와 같은 전국의 주요 경제·정치·문화 중심지로 하루 7~14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음.



○ 관광 및 천연자원

- **(관광)** 자라이성은 많은 웅대하고 아름다운 명승지와 문화·역사 유적지 및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그중 대표적인 것은 유네스코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떠이응우옌(Tay Nguyen)의 공 문화 공간(Space of gong culture)임. 공은 베트남 중부에 사용하는 고대 전통악기이며, 떠이응우옌의 공 문화 공간은 공, 악보, 연주하는 사람들, 공을 이용한 축제, 축제가 열리는 장소 등의 요소를 포함함.



떠이응우옌(Tay Nguyen)의 공 문화 공간

또한 자라이성에는 떠능(T'nung) 호수, 이아리(Ia Ly) 호수, 이아방(Ia Bang) 호수, 아윤하(Ayun Ha) 호수, 푸끄엉(Phu Cuong) 폭포, 항저이(Hang Doi) 폭포, 50 폭포, 데(Mo) 폭포, 동싸잉(Dong Xanh) 문화 공원 건가깅(Kon Ka Kinh) 국립 공원 곤츠랑(Kon Chu Rang) 자연보호구역, 꼬하능(Kon Ha Nung) 세계생물권보존지역과 같은 많은 관광 명소가 있음. 자라이성은 축제의 땅이라고도 불리며, 떠이응우옌 공 문화 축제, 야생 말미잘 축제, 기우제, 보트 경주 축제 등은 이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떠능(T'nung) 호수



건가깅(Kon Ka Kinh) 국립 공원



- (토지자원)** 총 자연면적은 15,510.13km²이며 27개 토양군이 7개의 주요 그룹(충적토, 회색토, 흑토, 적토, 적황부식토, 래프토솔등)에 속하는 많은 유형의 모암에 형성되어 있음. 대부분의 토지는 비옥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토양은 경작층이 두꺼워 농작물, 특히 다년생 공예작물의 개발에 매우 적합함.
- (수자원)** 자라이성은 세산(Se San) 강, 바(Ba) 강 및 세레폭(Serepok) 강 등 큰 강 시스템에 분포된 약 230억m³의 총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계곡과 평지는 많은 강과 하천이 흐르고 있어 농경지 생산 확대와 양식업 발전에 유리함. 수력 발전 산업은 자라이성의 잠재적인 산업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됨.
- (산림 자원)** 산림면적은 728,279.30ha로 성 전체 자연면적의 46.87%를 차지하고 있음. 다양한 기후를 가진 자라이성의 산림 생태계는 풍부하며, 동식물은 품종 수가 다양하고, 특히 희귀동물이 많음.
- (광물)** 자라이성은 풍부한 광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그 중 귀금속(보크사이트, 금, 철, 아연), 화강암, 석회석, 점토, 건축용 모래 및 자갈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광물이 있음.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 법적 근거: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비농업 토지 사용세법에 대한 제48/2010/QH12(2010.06.17)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모든 군과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15년간 세율 10%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세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프레이꾸(Pleiku)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7년간 계속 면제 - 비농업 토지 사용세: 50%~100% 감세(투자 분야에 따름)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Đ-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자라이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9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7.07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음. 그 중 5개 프로젝트는 자다(Tra Da) 공단에 집중되어 있음

○ 한국계 투자

자라이성에는 한국 투자 프로젝트가 아직 없으나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자라이성 내 FDI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OLAM Vietnam Limited (Pleiku branch)	농산물 구매 및 가공 공장	싱가포르	317.1 백만
2	OLAM Vietnam Limited (Gia Lai branch)	캐슈 가공 공장	싱가포르	135.2 백만
3	EPVN Company Limited	산지개발 풍력 발전소	태국	83.8 백만
4	EPVN Company Limited	페이응우옌(Tay Nguyen) 가공 풍력 발전소	태국	83.8 백만
5	HBRE Gia Lai Wind Power Joint Stock Company	Hbre Chu Prong 풍력 발전소	태국	71.2 백만
6	QUICORNAC Co., Ltd	QUICORNAC 과일 가공 공장	스위스	8.2 백만
7	Atlantic Commodities Vietnam Ltd (Gia Lai Branch)	ACOM 커피 가공 및 수출 공장	스위스	3.5 백만
8	BRE Singapore Pte.Ltd	Chu Ngoc- EVNLICOGI 16 태양광 발전소	싱가포르	3.3 백만
9	Louis Dreyfus Company Vietnam Trading And Processing Company Limited	커피 및 농산물 가공 공장	싱가포르	1.5 백만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주요 정보	투자자 / 개발사
1	레타잉 (Le Thanh) 국제관문	2001	41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득깨(Duc Co) 현 현재 36 투자자, 40개의 프로젝트 있음 현재 주요 분야: 상업-서비스, 창고업 	
2	자다(Tra Da) 공단	2003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프레이꾸(Pleiku)시 입주율: 100% 현재 55 투자자, 61개의 프로젝트 있음 주요 분야: 농림산물 가공업, 건축 자재 산업, 전자 기계 제조 및 조립, 소비재 생산 및 가공 등 	
3	확장 자다 (Tra Da) 공단	2011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프레이꾸(Pleiku)시 투자유치분야: 농림산물 가공, 바이오 연료 생산, 식품 가공, 소비재, 동물사료가공, 화학, 기계제, 전기, 전자, 저공해 산업 등 토지임대료: US0.05~0.08 달러/m²/년 인프라 임대료: US0.24 달러/m²/년 부지 정리 및 보상금: US1.3 달러/m² 폐수 처리 비용: US0.21 달러/m³ 	자라이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4	남프레이꾸 (Nam Pleiku) 공단	2019	19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즈세(Chu Se) 현 인프라 건설 진행 중 	Chu Se Rubber Company Limited

□ 투자 유망분야

- 관광
- 농림산물 심층 가공 산업
- 첨단 농업 관광
- 재생 에너지 산업

□ 자라이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자라이성 투자진흥센터	Mr. Le Tien Anh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69-382-4414 Email: skhdt@gialai.gov.vn Website: skhdt.gialai.gov.vn

<끝>



한·베 수교 30주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KIET(산업연구원)

올해(2022년)로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한지 30년이 되었고, 양국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베트남은 교역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의 제4대 교역국이고, 누적직접투자 규모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제3의 투자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에게 베트남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매우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베트남에게 우리나라를 자국의 산업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다.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규모는 매우 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간 교역이 대 부분이다. 이는 양국 간의 교역이 사실상 베트남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들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기업의 공급망에 베트남기업의 참여는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베트남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협력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을 상호 동반성장할 핵심파트너로 인식하고 우리의 공급망에 베트남기업을 참여시킬 방안을 베트남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베트남으로의 단계적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도 협력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혼재해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사업에 뚜렷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을 유기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한·베 수교 30주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KIET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내 월간 KIET 산업경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23. 1. 20 기준 누계		2023. 1. 1 ~ 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559	81,196.69	26	38.48	148.83
일본	4,993	69,175.26	13	12.18	41.57
중국	3,602	23,609.66	29	198.19	265.57
싱가포르	3,123	71,846.89	21	767.57	813.94
대만	2,917	36,476.70	9	15.58	139.16
홍콩	2,176	29,614.97	13	47.77	55.65
미국	1,224	11,422.34	6	6.81	8.44
버진아일랜드(영)	892	22,662.47	1	2	12.96
말레이시아	708	13,081.94	3	0.02	0.11
태국	685	13,119.03	5	5.41	10.56
네덜란드	412	13,813.70	1	0	5.83
기타	6,167	55,294.31	26	110.9	182.74
합계	36,458	441,313.95	153	1,204.91	1,685.35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2023. 1. 20 기준 누계		2023. 1. 1 ~ 1. 20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6,014	261,534.35	53	351.23	718.72
2	부동산경영	1,076	66,347.87	4	58.97	60.85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85	38,317.63	-	-	0
4	호텔, 외식서비스	935	12,681.66	4	0.18	2.85
5	건설	1,790	11,024.71	3	53.75	63.72
6	도소매, 유지보수	6,178	10,968.82	35	651.88	676.29
7	물류운수	993	6,254.35	7	77.95	82.92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133	4,966.02	22	2.37	41.74
9	정보통신	2,705	4,938.03	16	1.96	26.71
10	채광	108	4,894.57	-	-	0.04
11	교육, 양성	627	4,590.96	2	0.46	0.46
12	농, 임, 수산	528	3,859.57	4	5.21	5.43
13	예술 오락	140	3,418.60	-	-	-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4	3,042.93	-	-	-
15	의료와 사회복지	154	1,753.79	-	-	0.01
16	행정, 지원 서비스	566	1,039.81	2	0.96	-0.1
17	금융, 은행, 보험	89	945.05	1	0	5.22
18	기타서비스	146	724.15	-	-	0.48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6,458	441,313.95	153	1,204.91	1,685.35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20	2021	2022	2023.1
수 출	2826.5	3363.1	3713	236.1
수 입	2627	3322.3	3389	229.5
무역수지	199.5	40.8	324	6.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183	57,537	57,994	5,020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44,576	50,828	55,536	3,172
기계/플랜트 및 부품	27,193	38,344	45,751	2,900
섬유/직물제품	29,809	32,753	37,566	2,250
신발류	16,791	17,751	23,895	1,367
원목 및 목제품	12,371	14,809	16,011	806
철강제품	5,258	11,795	7,993	456
수송수단 및 부품	9,090	10,616	11,988	852
수산물	8,412	8,886	10,923	457
원사(Yarn)	3,736	5,612	4,713	225
기 타	74,235	87,379	98,934	6,105
합 계	282,654	336,310	371,304	23,61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1
전자제품 및 컴퓨터	63,971	75,440	81,884	6,562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251	46,296	45,192	2,739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645	21,434	21,126	793
의류(원단)	11,875	14,324	14,706	936
플라스틱 원료	8,397	11,685	12,387	588
각종 철강	8,066	11,523	11,920	82
기타 비금속	6,052	8,611	9,253	556
플라스틱 제품	7,274	7,959	8,119	515
화학제품	5,741	7,627	9,144	478
화학물질	5,016	7,735	8,747	501
기 타	92,412	119,600	136,423	9,204
합 계	262,700	332,234	358,901	22,95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1
1	미국	61,347	77,077	96,293	109,388	6,150
2	중국	41,414	48,905	56,009	57,702	3,871
3	한국	19,720	19,107	21,945	24,293	1,693
4	일본	20,413	19,284	20,128	24,232	1,538
5	홍콩	7,156	10,437	11,996	10,936	524
6	네덜란드	6,881	6,999	7,686	10,430	684
7	독일	6,555	6,644	7,286	8,968	569
8	인도	6,674	5,235	6,259	7,961	604
9	태국	5,272	4,917	6,161	7,476	532
10	영국	5,758	4,955	5,765	6,065	496
	기타	82,999	79,094	96,782	103,853	6,949
	합계	264,189	282,654	336,310	371,304	23,61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1
1	중국	75,452	84,187	109,874	117,866	7,228
2	한국	46,935	46,895	56,155	62,088	3,908
3	대만	15,173	16,701	20,772	22,631	1,468
4	일본	19,526	20,341	22,648	23,373	1,675
5	미국	14,365	13,713	15,270	14,470	923
6	태국	11,656	10,968	12,564	14,092	765
7	오스트레일리아	4,456	4,677	7,946	10,144	498
8	말레이시아	7,291	6,575	8,148	9,124	676
9	인도네시아	5,703	5,382	7,587	9,641	572
10	인도	4,538	4,435	6,950	7,086	422
	기타	47,975	48,826	64,320	68,386	4,819
	합계	253,070	262,700	332,234	358,901	22,95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1
수 출	48,178(-0.9)	48,510(0.7)	56,729(16.9)	60,972(7.5)	3,791(-28.6)
수 입	21,071(7.3)	20,579(-2.3)	23,965(16.5)	26,726(11.5)	2,401(3.9)
무역수지	27,107	27,931	32,763	34,246	1,390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	2023.1
반도체	10,730(-1.9)	11,501(7.2)	14,026(22)	16,240(15.8)	908(-34.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970(-10.5)	9,552(19.9)	12,050(26.1)	12,527(4.0)	850(-27.2)
석유제품	2,196(11.2)	1,196(-45.5)	1,157(-3.2)	3,733(222.3)	287(134.1)
무선통신기기	2,932(11.4)	3,460(18)	3,315(-4.2)	2,358(-29.2)	188(-30.1)
기구부품	2,230(-4.4)	2,241(0.5)	2,405(7.3)	2,194(-8.8)	146(-25.2)
합성수지	1,624(-2.1)	1,615(-0.6)	2,415(49.5)	2,581(6.9)	138(-53.5)
플라스틱 제품	1,210(0.4)	1,115(-7.8)	1,174(5.3)	1,067(-9.2)	67(-31.7)
자동차부품	668(40.9)	673(0.8)	924(37.3)	1,168(26.4)	64(-34.4)
계측제어분석기	783(12.4)	669(-14.5)	957(43.0)	793(-17.1)	51(-5.6)
편직물	996(-10.0)	851(-14.6)	931(9.4)	812(-12.7)	45(-39.8)
철강판	1,157(10.4)	1,052(-9.1)	1,267(20.4)	1,069(-15.6)	45(-55.8)
기타	15,682	14,586	18,513	16,430	1,002
합 계	48,178(-0.9)	48,511(0.7)	56,729(16.9)	60,972(7.5)	3,791(-28.6)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	2023.1
무선통신기기	5,691(17.6)	4,980(-12.5)	5,579(12)	5,986(7.3)	407(-14.0)
의류	3,646(2.1)	3,145(-13.7)	3,393(7.9)	3,840(13.2)	395(25.0)
컴퓨터	679(25.9)	1,270(87.1)	1,659(30.6)	1,948(19.1)	319(11.9)
신변잡화	1,053(7.4)	1,029(-2.2)	984(-4.4)	1,250(27.2)	133(21.2)
산업용 전기기기	479(14.8)	574(20)	725(26.2)	970(33.8)	99(41.4)
목재류	657(-17.1)	632(-3.9)	755(19.5)	942(24.8)	88(6.3)
반도체	471(19.1)	561(18.9)	750(33.8)	787(5.0)	70(30.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97(5.2)	1,027(-14.2)	876(-14.7)	783(-10.5)	61(9.6)
기구부품	512(15.1)	481(-5.9)	624(29.6)	654(4.8)	42(-22.7)
영상기기	356(-2)	406(14)	460(13.2)	463(0.7)	38(-26.0)
기 타	6,331	6,474	8,161	9,103	749
합 계	21,072(7.3)	20,579(-2.3)	23,966(16.5)	26,726(11.5)	2,401(3.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2년(연간)	%	3.6*	7.6	8.7	5.31	8.0	
	2022년 3Q	%	4.1	7.6	14.2	5.7	13.7	
	2022년 4Q	%	2.2*	7.2	N/A	5.0	5.9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124.9	N/A	126.2	1.39	7.8%
		2022년 11월	-	117.3	10.0	131.1	1.6	5.3%
		2022년 12월	-	129.6	12.7	130.2	1.6	0.2%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2년(연간)	-	N/A	N/A	120.8	N/A	N/A
		2022년 11월	-	49.8	52.7	120.0	50.3	47.4
		2022년 12월	-	49.7	53.1	119.6	50.9	46.4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2년(연간)	-	108.4	N/A	N/A	119.9	N/A
		2022년 11월	-	111.0	N/A	N/A	119.1	N/A
		2022년 12월	-	111.2	N/A	N/A	119.9	N/A
	소매판매	2022년(연간)	-	100.3	4.5%	161.5	6.2%	19.8%
		2022년 11월	-	102.4	6.0	169.7	1.3%	17.5%
		2022년 12월	-	120.3	6.0	171.3	0.7%	17.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6.0*	5.8	3.3	4.2	3.2
		2022년 11월	%	6.7	8.0	4.0	5.4	4.4
		2022년 12월	%	6.5	8.1	3.8	5.5	4.6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2년(연간)	%	N/A	N/A	N/A	3.87	△11.0(누계)
		2022년 11월	%	N/A	N/A	N/A	3.3	△5.0(누계)
		2022년 12월	%	N/A	N/A	N/A	3.3	△11.0(누계)
고용	실업률	2022년(연간)	%	2.1	N/A	3.8	N/A	2.3
		2022년 3Q	%	2.0	5.2	3.7	5.9	2.3
		2022년 4Q	%	1.9	4.3	3.6	N/A	2.3
무역	수출증가율	2022년(연간)	%	15.6	14.5	25.0	26.1	7.1
		2022년 11월	%	△4.5	△1.9	15.6	5.6	△8.4
		2022년 12월	%	△7.1	△9.9	6.0	6.6	△14.0
	수입증가율	2022년(연간)	%	20.1	17.3	31.3	21.0	8.6
		2022년 11월	%	0.0	13.2	15.6	△1.9	△7.3
		2022년 12월	%	△8.2	△9.7	12.0	△6.6	△8.1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시범공고)

최근 한국정부('산업부')는 해외 진출기업들을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하여 산업부, 코트라, 에너지공단이 함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골자>

- ① 선정된 우리 기업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에서 투자하고,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건당 최대 30억원 한도)
 - ② 프로젝트 수행 후 인증받은 감축실적을 수행 기업과 나누고, 정부 투자분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을 활용
- * 사업공고 링크 :
-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61?pmode=detail&nttSeq=25917>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시범공고) 해외 설명회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 ▶ (일시/장소) '23.3.8(수) 09:00-11:00(베트남 시간) / 뉴월드 사이공호텔 (호치민시, 1군)
* 온라인 참석자의 경우 신청한 이메일 주소로 Zoom 링크 안내 예정 (2월 5주차 예정)
- ▶ (주요내용) (1)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지원계획 소개 (2)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설명 등
- ▶ (신청방법, 모아옴) <https://answer.moaform.com/answers/EJ0zaP>

- 문의처 : KOTRA 하노이무역관 윤진슬 과장 (jinseul_y@kotra.or.kr) 끝.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

투자·이전 보조금

- ✓ 지원비율 11~44%
- ✓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 (기업당 국비 600억원 한도)



세제지원

- ✓ 법인세 감면: 최대 7년간 50~100%
- ✓ 관세 감면: 자본재 도입시 50~100%

* 기업·자역·유형에 따라 지원사항 상이

인력 고용 지원

- ✓ 고용창출장려금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연 (최대 100명 한도)
- ✓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스마트공장 및 R&D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총 사업비의 50% 등)
- ✓ 산업부 R&D사업 우대 지원



입지 지원

- ✓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하용
- ✓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 가능

금융·자재권 지원

- ✓ 시설투자금액 대출 지원
- ✓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우대지원



구조조정컨설팅

- ✓ 구조조정컨설팅 일선 및 비용 일부 지원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1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방역·면역산업', '정보통신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2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자본 30%이상)하는 한국의 모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설법인/개인사업자를 통해 신청 가능함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첨단산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인 경우 구조조정 요건 면제 가능)

4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투자를 이행할 것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궁금하신가요?

KOTRA 유엔지원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reshoring@kotra.or.kr
www.investkorea.org (국내복귀기업지원)

KOTRA 하노이무역관

024-3946-0511(ext16)
kimkd@kotra.or.kr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별도신청 가능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총 컨설팅 비용의 30%~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 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 ① 구조조정모델 제안 ② 속도대행 ③ 청산대행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②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

진행절차 사업 신청 → 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원료 평가 → 컨설팅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 연중상시(컨설팅 용역 원료 이전에 신청) / 연간 예산 한도 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행사소개

이데일리는 3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한·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란 주제로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를 개최합니다.

베트남은 교육 투자 인적교류 등 모든면에서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의 제1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았으며,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교류 및 투자도 지속적으로 회복,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금융에 대해 논의하며 팬데믹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금융환경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금융을 넘어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관계가 두터워지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이 머리를 맞대고 혁신성장, 공동번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팬데믹을 극복하고 양국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

주 제 | 한·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 혁신 그 이상을 넘어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3월 18일(토)

장 소 | 인터컨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72

주최 | 이데일리

후원 |

프로그램

DAY1 3월 16일(목)

시간	프로그램 및 연사
17:00~17:30	환영 리셉션
17:30~17:50	개회식 개회사: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 축사: 오영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이영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영사: 베트남 중앙은행
17:50~18:00	VIP 기념촬영
18:00~18:30	오프닝 세션 한국-베트남, 디지털 금융혁신 파트너 돼야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18:30~20:00	환영 만찬 건대사: 박한서 前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DAY 2 3월 17일(금)

시간	프로그램 및 연사
----	-----------

10:00~10:30	기조연설 1 디지털화 시대 한-베 경제·금융 발전 방안 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

10:30~11:00	기조연설 2 베트남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
-------------	---------------------------

11:00~11:30	특별강연 핀테크와 동반 성장하는 한류 바람 손지향 베니카(MICE 전문기업) 대표
-------------	---

11:30~13:00	점심 식사
-------------	-------

	Track 1	Track 2
13:00~14:00	뱅크 4.0시대, 미래은행을 만나다 모더레이터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발표 및 대담 김수진 연세대 박사(KT연구원) 부단아 잉 베트남 재무부 경제학자	달아오르는 동남아 핀테크 시장, 그리고 키카오 발표 신원근 키카오피아 대표 응우옌 당 흥 핀테크클럽 회장
14:00~15:00	베트남에서도 부는 금융의 디지털화 발표 및 토론 이종인 베트남우리은행장(법인장) 황철오 신한베트남은행디지털 총괄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법인장 전문철 KBSV 법인장 응우옌 화 끄엉 중앙경제관리연구소 부원장	MZ세대의 금융은 '콘텐츠(게임)에서 시작된다' 발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예릭 흥 응웬 스포어스 네트워크 대표
15:20~16:20	한-베, 디지털보험 협력방안 발표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좌장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패널 예영해 삼성화재 베트남 법인장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응원 흐우 뚜찌 이글루 베트남법인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및 韓 기업들의 진출전략 발표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

* 주요 프로그램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연사

오영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사무국

- Tel +84-24-3855-2760
- E-mail smbl.seungah@gmail.com



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클릭시 참가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023년 상반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KOTRA에서는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번역을 지원하는 법제처 서비스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수요조사 기간
2023. 02. 06.(월) ~ 12. 31.(일)

법제처
KLIS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 내
[수요조사 게시판]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소개에서 수요조사 참여 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문의처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